

[COVID-19] 금융위기 대응 및 비상 계획

Financial crisis response and contingency planning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와 산업은 전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한 시민들의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부 지침들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은 단기간에 반영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사의 비상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을 수립할 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1) 대출상환 연기 등을 통해 최대한의 현금 확보, 2)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긴밀하게 파악, 3)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제한된다는 점 확인, 4) 단기 현금 흐름 예측(STCFF)을 통한 현금 보유량 파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상황 속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대응 매뉴얼은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의 지원 조치가 추가되고 안정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KPMG는 경제상황이 회복 될 때까지 잠시 동안 비즈니스를 '휴업(Hibernation)' 상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제안합니다. 물론 휴업 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특정 비즈니스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임대업체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Job Retention Scheme Scheme)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를 휴업 상태로의 전환 2) 온·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유통업체의 경우, 단기간은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을 제한하고,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를 운영, 3) 최종 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하에 엑시트(Exit) 전략 구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강민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6617
minyounkang@kr.kpmg.com

Keywords ▶

#코로나19 #COVID-19 #비상계획